

# 연인과의 갈등

## -Sons and Lovers를 중심으로-

박 정 길\*

## 1

D.H Lawrence(이하 D.H.L.또는 Lawrence)의 생애는 짧지만 그러나 파란의 세월이었다. 전통에 속해 있으면서도 현대에 살기를 고집했던 그는 당대의 구습에서 깨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자기의 예술에 혼을 담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갔다. 그리고 그의 위대성에 대한 평가에서 흔히 접하게되는 성공과 실패의 언저리에는 항상 여럿의 여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E.T.(Jessie Chambers의 필명, 이하 E.T또는 Jessie)는 Lawrence의 인생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드는 여인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실로 그(Lawrence)의 청춘시절을 있게 한 최초의 여성중 한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의 문학인생의 길을 열었던 여인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양심이고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만나서 공부하고, 교우하고, 사랑도 했다. 그리고 소설 Sons and Lovers(이하 S/L)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상당부분의 episodes가 두 사람간에 있었던 청춘시절의 얘기로 채워져 있으며 The Miriam Paper의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그녀의 생생한 기록으로 보아 그녀에 의해 기술된 중요한 몇몇 episodes 가 Lawrence 에 의해 다른 의미의 episodes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도 하여 그들의 가까웠던 관계가 S/L의 내용에도 실로 중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짐작함에 어렵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에는 실존의 인물이었던 Jessie가 모델이 된 Miriam과 Lawrence 자신이랄 수 있는 Paul이 만나서 서로 헤어지기까지의 소설적 상황이 그려져 있어 이들이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E.T.에 의한 감동적인 A Personal Record는 이들 관계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이 글은 S/L에 나타난 소설적 상황을 통하여 Paul과 Miriam의 관계를 알아보는 가운데 Jessie와 Lawrence와의 갈등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교수(영미소설 전공)

※ 1996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교양논총 제4집에 게재된 논문임.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Jessie는 S/L의 전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가 보는 원초적인 불만은 청춘시절에 그와의 아름다웠던 관계를 저버린 표현으로 Lawrence가 그들 관계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Jessie의 입장은 자전적 사실(biographical fact)과 소설 만들기(novel-form)에서 요구되는 허구(fiction)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Her principal contention in regard to sons and Lovers was that the book "betrayed" the beauty of her early relationship with Lawrence; she continually makes it clear that she cannot distinguish between biographical fact and the necessary fiction required for the novel-form.<sup>1)</sup>

그녀의 이런 생각은 소설 S/L에서 여타의 것은 체처 두더라도 최소한 Paul vs. Miriam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자신과 그의 사이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왜곡함이 없이-있었던 그대로를 가감없이-설명되었어도 이야기는 얼마든지 흥미로울 수 있으며 참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Lawrence는 Jessie가 공감할 수 없었고 또 대중이 공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의도대로 소설을 끌고 갔으며 결국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두 사람이 마찰을 빚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우리는 Paul, Miriam, 그리고 Mrs. Morel 간의 이같이 불편한 관계가 S/L의 중핵적인 장 이랄 수 있는 7. 8. 9. 11장에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 2

제 이장의 첫 몇 페이지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를 추측해 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다. 여기에는 Paul과 Miriam의 관계가 다른 인물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과 또 그들의 기질과 태도가 매우 특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두 사람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Miriam은 로맨틱한 생각 'romantic in her soul'을 품고 있으며 자기는 Walter Scott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지만 겉으로는 이 농원에서 그저 돼지지기의 소녀 'something of a princess turn into a swine-girl in her own imagination'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역인 Paul은 Walter Scott경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소년으로 불어를 하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매일 노팅햄을 오가는, 그리하여 이 소년이 자기의 내부에 숨어 있는 공주의 면면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염려하는 위상 설정을 해 두고 있음을 본다. 이려고 보니 소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봐 주기를 기대하는 이상으로 돼지지기로서의 자기 지위를 증오하는 열등의식의 심리상태에 빠지는 꼴이 되어 있다.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인 Mrs Leivers도 종교적이며 신비적인 경향이 있어 이 소녀의 최대의 친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위대한 신의 상징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해 마지않는 Miriam으로서는 종교야말로 자신의 전 인생이 되고 있다.

이때 Paul은 막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가 지닌 작은 분량의 학식마저도 소녀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한편 가정에서의 Miriam은 아버지가 가슴속에 그 무슨 신비적인 이상-any mystical ideals-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하여 평가하지 않으려 하였고 남형제들을 불한당-brutal louts-이라 하여 깔보거나 무시하면서 그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는 빠짐없이 나가고 있으며 ‘다른 여자 합창단의 찬박함’ 이나 ‘부목사의 평범한 목소리’ 를 듣게 되면 교회에 대한 그녀의 존경심 때문에 그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하는 것이다.

Miriam은 ‘보통의 인간 교제가 갖는 하찮은 일을 경멸’ -they scorned the triviality which forms common human intercourse. S/L184.-하는 단절된 사회 속의 일원으로 남아 있다. 그녀의 이러한 정신 의식은 종교적인 열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따라서 그녀에게 있어서 현실계의 온갖 형상의 인식은 ‘사물을 가졌다고 느끼기에 앞서 자기의 상상 속에서나 영혼 속에서 그것들에 불을 지필 필요가 있다’ 하여 반드시 그 무슨 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속성의 여자 로 묘사해 두고는 바로 그 인식의 언저리에 그녀의 종교적인 감정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Miriam이라는 여자는 남과 잘 친교 할 수 없는 어려운 여자, 주어진 운명에 만족할 줄 모르는 여자, 거기다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애정을 탐하는 여자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그녀는 Paul과 함께 있으면서 살아 있는 실체에서 발견되는 원형질의 ‘shimmeress’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Paul의 건강한 체격이 주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이러한 감흥은 닭이 손바닥 위에 놓인 모이를 쪼아대는 공포까지도 감내 하면서 Paul에게로 접근해 가고자 하는 그녀의 정열에서 우리는 그녀가 단순히 낭만의 백일몽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난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Miriam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그녀가 정상적인 여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Miriam이 느끼는 애정의 황홀을 두려워한 것은 오히려 Paul이었다. 종교적인 문제만 해도 그렇다. Miriam과 함께 Paul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다. 그는 교회에 와서는 혹시 ‘자신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며 두려운

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장소가 갖는 기묘한 매력을 공감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들은 ‘자연속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나란히 기도를 올리는 것’ 등으로 해서 그들은 서로가 끌리고 있다. Paul이 그의 예술적 감각에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의 환상이 깊어졌던 것은 Miriam과의 접촉 덕분이었다. 그러므로 Paul이 Rivers가의 사람들이나 Miriam을 보고 지나치게 종교적이라 해서 그것으로 Miriam을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Paul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나 다름이 없다. Paul이 Willey Farm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가 Leivers가의 종교적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Paul은 Miriam이 소나무처럼 속이 달아서 활활 불타 없어지고 마는 극단적인 감정의 소유자로 본다. 그래서 Paul은 Miriam이 느끼는 애정의 황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Miriam이 동생 Hubert를 애정 어린 감정으로 팔에 안고 가만 가만 흔들어 보는 행위도 Paul의 눈에는 그녀가 마치 애정의 황홀 속에서 실신한 것 같은 몸짓으로 동생을 좌우로 흔들었다. ‘and swaying also as if she were swooned in an ecstasy of love. S/L」190 -’ 고 말함으로써 Miriam의 걱정이 오히려 자신을 초조하게 만들고 사소한 일이지만 Miriam이 동생과 취하는 적나라한 접촉이 Paul, 그에게는 무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Paul이 느끼는 감흥과 Miriam이 느끼는 감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만이 함께 하는 여름날의 산책을 일 예로 생각해 보자. 여기에는 이 소설만이 갖는 전형적인 자연의 풍경이 배경으로 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Herod's farm을 지나 Willey Farm까지 걸어오고 있다. 북서쪽 하늘의 노을 아래 Alfreton으로 향하는 신작로가 뻗어 있는 곳에 이른다. 여기는 Miriam이 살고 있는 집까지의 거리와 자신의 집이 있는 곳까지 꼭 반이 되는 거리이다. Shelby읍과 딱딱한 주택, 탄광의 굴대 받이가 저만치서 까만 그림자 같이 하늘을 등지고 서 있다. Paul은 망설이고 있다. 늦은 귀가를 나무람할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숲속은 지금이 좋아요’ -The wood is so lovely now. S/L197 - 라는 말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Paul과 함께 있는 송림은 Miriam에게는 마음을 조이게 하는 신성한 그 무엇 -something that thrilled her, something holy. S/L197 - 인 반면에 Paul에게는 막연히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순간이 되고 있다.

Harry T. Moore가 말하는 이른바 대자연에 노출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상황 설명-This sequence is particularly remarkable because it is one of the first successful large-scale attempts by Lawrence to fuse character and landscape-2」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물과 배경의 합성을 통한 서술상의 시도는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Miriam이 영적 친교를 원하고 있는 데다가 Paul

이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들어 작가가 이들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의 연애편계는 처음부터 참담한 실패인 것이다. 그 이유로 작가는 이들 두 사람이 다같이 성숙이 늦어 있었고 정신적 성숙은 육체적 성숙 보다 더 늦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잉태와 출산’이 계속되는 농장과 대자연을 배경으로 이 두 사람간에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가 ‘육체와 정신’, ‘낭만과 현실’, ‘종교와 관능’에 대한 단순한 대립적 차원의 갈등 관계를 넘어 이제는 상호 인력의 비중을 탐색해 넘으로써 상대에게서 자신의 끌림에 대한 강도를 알아내고자 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G.Salgado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두 사람간에 놓여 있는 두드러진 갈등으로 보고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육체적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생기는 좌절감 - there is the frustration caused by the denial of the physical element in the relationship.-3」을 들었고, 둘째로는 Paul과 Miriam의 관계가 실패로 끝날 운명에 처해있다는 가정 아래 Paul을 그의 어머니와 Miriam 이 서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쟁투를 벌이는, 좀더 정확히 말하면 Paul이 그들 두 여인의 전장 - Paul as the prize for which two women, his mother and Miriam, struggle, or perhaps more accurately as the battleground for their struggle.-4」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편으로는 연적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의해 제약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식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 - And the revelation of this love, constricted on one side by the possessive demands of a rival, tormented on the other by its own consciousness of guilt.-5」고 썼다. 그는 ‘Paul의 잔인성에 대한 Miriam의 반응이 매우 둔감하지만, 그러나 작가가 Paul을 옹호하면서 Miriam에게는 가혹했다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Paul이 ‘Miriam과의 접촉에서 통찰력을 얻었으며, 그의 시야가 더욱 깊어 졌던 것도 그녀의 덕분이었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생명의 온기와 생산력을 얻었으나 이를 백열화 한 것은 Miriam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에 근거하는 평가일까?

Miriam은 Paul을 재발견함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게다가 Miriam은 다른 누구와도 쉽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대자연이 그녀의 친구이며 동료이고 애인 - she didn't fit in with the other; she could very rarely get into human relations with anyone: so her friend, her companion, her lover, was Nature. S/L 205 - 이 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여자를 Paul의 잠재력을 발견해 낸 여자, 그의

고독을 이해하는 여자, 성 수태고지를 들은 듯한 경건한 심정으로 Paul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로 운명지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응하는 Paul의 태도는 어떤가? Nether Green episodes; see S/L 206.를 보면 그의 태도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다: ‘글쎄’ (….) ‘한쪽이 사랑하면 다른 한 쪽도 사랑하는 법이오 ‘(….)’ 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은 얘이지만, 사랑이 사랑을 생기게 한다더군.’ (….)’말하자면 그런 거지, 그래야만 한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 ‘You know’ (….)if one person loves, the other does.’ (….) ‘Ah!’ (….)like mother said to me when I was little, ‘Love begets love.’(….)Yes, something like that, I think it must be’ S/L206 - 라는 것이 Paul이 마지못해 하는 대답이다. 그리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Miriam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I hope so.’ ibid,206 - 라며 화답하고 있다.

그녀는 일찍부터 Paul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으며 Paul이 그 점을 확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Paul 에게서 마침내 확인된 이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천계 ‘a revelation’와 다름없는 황홀한 느낌이다. 그런데 Miriam이 Paul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느님의 아들’ -Thy son-임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Miriam의 Paul에 대한 사랑은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한 추상의 관념에 머물러 있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Paul은 그들의 관계가 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두 사람 사이의 친밀은 추상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영혼상의 문제이며,(….)’ 그러므로 ‘Paul은 그것을 우정-Platonicfriendship-이라고만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이다.(see S/L213)

이렇게 된 데에는 그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심한 자책성의 억압을 받고 있었다고 해야겠다. 그중 하나는 Paul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의 정신속에 뿌리 깊이 남아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어머니에 대한 Paul의 의식적인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보통 ‘남성이 여성을 원하는 식으로 Miriam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The fact that he might want her as a man wants a woman had in him been suppressed into a shame. ‘S/L221 - 을 그는 ‘수치스런 일’ 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저변에는 그녀를 육체적으로 감당해 낼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에 대한 경멸감이 깔려 있다. 이로 인하여 Paul은 점차 우울해지고, 까다로워지며, 성말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쳐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의 이같은 불만은 필시 Miriam 때문이라는 이유를 이끌어 내게 하고는, 이를 계기로 하여 Paul과 Miriam사이에 어머니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Lawrence가 생각하는 이른바 자신을 지탱해 주는 수호의 신령이며 영혼의 뿌리인 것이다. Alfred Kazin에 의하면 어머니는 그에게 있어서 심리적 의식계에 머물고 있는 존재로서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신화적이며 신성시되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로 굳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Not "Love" in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nscious consideration, but love in my theological sense of a sacred connection, was what Lawrence associated his mother and Paul with Mrs. Morel.-6」

### 3

그러므로 'strife in Love'에서는 Miriam이 한층 더 가혹한 시련을 맞으리라는 사실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두 여인의 틈바구니에 낀 Paul의 고뇌 어린 자기분열이 Miriam을 향하여 과연 어떤 형태로 투사되어 올 것인가? 그리고 이에 저항해 오는 Miriam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이런 의문이 Paul 과 Miriam의 장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논쟁이 두 사람 관계의 접근이라기 보다는 갈라 설 수밖에 없는 극적인 수단을 찾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감을 주기에 충분한 언행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Paul은 Miriam이 자신을 원체 정신적인 존재로 만든다며 불평한다;- 'You make me so spiritual!(...) 'And I don't want to be spiritual!' .S/L 232 - 그러나 Miriam의 생각은 다르다; Miriam 자신이 정신적이기 때문에 그가 육체와 정신의 분리로 인하여 몸이 두개로 쪼개지는 느낌 - and it seemed to tear him in two. S/L 232 - 을 받는다며 Paul이 자신에게 불평을 해 온다는 것은 전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Paul은 자기의 그녀를 향한 정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Miriam의 소극적 대응이 불만이다. Miriam도 Paul에게는 자신을 매혹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비적인 행위 없이 Paul자신의 정신 활동에만 머물러 있는 침묵하는 정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정신 활동마저도 Miriam을 향한 간절함에서 포착되는 자신의 감흥이 상대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양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Miriam에게서도 꼭 같이 나타나고 있다; Paul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Paul이 자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 그를 포옹하고자 하는 것이다.(see S/L 233)이와 같이 그들 관계의 그 모든 일들은 동시적이 아니라 언제나 사후적이다. 바로 이러한 이견과 정신 활동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틈

이랄 수 있다.

외형상으로 볼 때 Paul의 정신 활동이 훨씬 적극적이며 육체적인데 반하여 Miriam의 Paul에 대한 대응 심리는 소극적이며 지나치리만큼 정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감흥일 뿐이지 기실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Miriam이 정신적이라면 Paul 또한 Miriam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동량의 정신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둘은 모두가 다같이 정신적이로되 적극적인 행동 양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매혹은 육체에 담겨 있는 영혼에의 매혹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Paul이 Michael Angelo를 논할 때의 경우를 보자. Miriam 은 그때 생명의 원형질을 만지는 듯한 깊은 만족으로 마치 혼수상태 'in a trance' 에 빠져 있다. 거의 비인간적 'inhuman인 경지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육체의 활동은 정지되어 있다. 그때 그들의 육체는 정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실체 'uninstmmmental' 의 덩어리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비로소 Paul과 Miriam의 무의식적 자아 'unconscious self 는 자기속에 상대를 흡수하고, 요구하면서 겨우 열광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는 Paul 자신도 Miriam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는 그녀의 사랑이 두려웠다. 그녀의 사랑은 그에게 과분하고 부적당하다' - He was afraid of her love for him. It was too good for him, and he was inadequate. His own love was at fault, not hers. S/L 255 - 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다. 그러므로 허물은 그의 애정에 있는 것이지 Miriam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것은 곧 Paul이 Miriam을 피하고 있는 것 일 뿐 감정의 진실을 숨기고 있음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Mrs Morel의 Paul에 대한 지배 의지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Miriam에 대해 쏟아내고 있는 강도 높은 분노의 표현양식, 그리고 이에 대응해 가는 언행에서 포착되는 Miriam에 대한 Paul의 의지가 과연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Miriam에 대한 불만은 순전히 욕망 충족이라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보통 여자와 다르다'거나 '어머니 몫을 남겨 놓지 않는다' 라거나 'Paul한테서 전부를 빨아먹고(...), Paul이 제발로 설 수 있는 인간이 영영 되지 못할 거야.' - 'She' s not like an ordinary woman, who can leave me my share in him. She want to absorb him. she wants to draw him out and absorb him till there is nothing left of him, even for himself. He will never be a man on his own feet-she will suck him up.' S/L 237. - 라는 등의 심



적 고통으로 어머니는 막연해 하고 있다. 이러한 고뇌의 한 쪽에는 혹시 아들의 애정을 그녀 때문에 보장받을 수 없을는지 모른다는 불안의 심리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강도 높게 비호함으로써 Miriam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들 앞에서 더욱 확실히 해둠과 동시에 아들을 자신에게 계속 묶어 두려는 어머니의 강렬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어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같은 분노와 고통의 한가운데에 서서 아들은 모자간의 육체적 친근성에 더 가까이 서 있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Paul이 Miriam 보다는 어머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소유하려는 어머니는 Miriam을 파괴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녀의 강렬한 적의를 계속해서 들어내고 있다: ‘다른 여자이면 모르되 Miriam이면 안된다.- ‘I cant bear it. I could let another woman-but not her. She’d leave me no room, not a bit of room--’ S/L 261 - 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오래 전부터 남편이 없었던 것을 아는 이 아들은 어머니의 이 같은 ‘- And I’ve never-you know, Paul-I’ve never had a husband-not really--’ S/L 262 - 호소 앞에 간단히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 Well I don’t love her. S/L262 - 라는 대답을 흘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의식해야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Miriam을 생각하자니 Miriam을 포기하겠노라고 쉽게 말해 버린 자신의 결정이 커다란 굴욕감으로 다가와 비참한 심경이지만 체념의 씩씩한 평화 - the bitter peace of resignation S/L264 - 를 어머니에게서 찾음으로서 자신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어머니 쪽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 4

Defeat of Miriam’ 에 오면 Paul의 그러한 감정은 훨씬 뚜렷해진다. Paul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온갖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어머니를 노하게 해서도 안되고,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상처가 났다고 생각할 때면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Miriam도 Paul도 다같이 자기들의 전도에는 비극과 비애와 희생만이 있을 뿐이어서 파국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Paul은 그 책임이 Miriam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너는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거나 한 듯이 흡수하고 또 흡수하려는 욕망 - You absorb, absorb, as if you must fill yourself up with love, because you’ve got a shortage somewhere.’ S/L 268 - 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으며 Miriam은 어머니에게 기울어 있어 점점더 포악해 가는 Paul의 증오심에 어리둥절해 있다.

‘당신은 날 사랑할 생각은 없고-영구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상한 욕망’ -You don't want to love-your eternal and abnormal craving is to be loved. S/L268 - 의 소유자요 ‘사물의 혼을 꺾어내’-You wheedle the soul out of things. S/L 268 -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절대욕구의 소유자라고 몰아간다.

그리고 이제부터 Paul은 Miriam에 대한 비난이 좀더 구체화시키는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넌 언제나 사랑을 구걸하고 있어, 마치 사랑에 굶주린 사람같이. 주위의 사물들이 널 사랑에 주기를 바라는 듯이. 너는 꽃에 누에초차 아침을 하고 있는거야.’ - You're always beginning for things to love you'...)'as if you were a beggar for love. Even the flowers, you have to fawn on them--'S/L268 - 그리고 ‘적어도 나는 너처럼 사물에서 혼을 꺾어내는 것이 아니라--직접 사물을 대한다’ - I would never wheedle(the soul out of things)-at any rate, I'd go straight.’ S/L 268 - 며 Miriam을 책망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Miriam은 과연 그런 여자인가? 이 점에 대하여는 후기 하기로 하고, 아들 앞에 새롭게 등장한 Clara라는 여인에 대하여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한 마디로 말해서 Mrs. Morel은 Clara에 대한 아들의 새로운 관심에 대해서 Miriam을 대했던 태도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 만큼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는 Paul/Clara의 친교로 인하여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의연해 있다. 사실 어머니는 평소에 아들이 ‘어떤 참한 여자와 알게 되기’ - she wished he knew some nice woman--S/L297 - 를 바랬던 터였는데, 그런 어머니 앞에 서른살의 여인이 Paul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도 ‘어머니 자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명확한 개념’ -she did not know what she wished, but left it vague. S/L 297 - 도 없이 아들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기쁜 일이라 하여 이들의 관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어머니의 이 같은 유연한 태도 너머에는 아들과 자기가 공조하여 Miriam을 물리친 어머니의 뿌듯한 만족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Paul은 Miriam과의 관계를 일거에 Friendship으로 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애정을 가교로 하는 친교의 관계를 정리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 의식속에 남아 있는 애정을 가교로 하는 친교의 감정을 Clara에게로 옮겨놓은 자기의식의 중심이동을 꺾는 것이다. Miriam에게서 부족했던 쾌락의 충동을 Clara에게서 구할 수 있게 된 Paul은 ‘영적인 사랑은 바칠 수 있어도 육체안에 구현된 정열은 바칠 수 없다’ - I can give you a spirit love, I have given it you(...); but not embodied passion. S/L 307 - 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Miriam에게 우리사이에 ‘육체라는 것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다.

In all our relations no body enters. S/L 307 - 는 것이었고 마침내는 Miriam을 일러 ‘당신은 수녀-you are a nun. S/L 307 - 라 규정해 버리는 것이었다.

Paul은 ‘감각보다는 오히려 영혼을 통하여 당신과 이야기를 한다’ 고 쓰고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보통 의미의 연애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는 보통 기분으로 Miriam을 대하고 싶으나 그녀의 종교적 심성에 남아있는 불사의 영혼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안다고 믿지 않는다’ 고 말하고는 이어서 ‘신은 사물을 알지 못하며 사물 자체가 신이요, 신은 절대로 영적이 아니다’ -I don’t believe God knows such a lot about Himself.(…)God doesn’t know things, He is things. And I am sure he’s not soulfull. S/L 307 - 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Paul은 ‘온갖 것이 종교적이라야만 하며, 신이 무엇이든 온갖 것에 존재해야만 한다 - But Miriam knew that one should be religious in everything, have God, whatever God might be, present in everything. S/L 307 - 고 생각하는 Miriam의 생각을 거부하고 그녀의 기를 꺾어놓고 싶어하지만 자기식의 생각대로, 자기편에 서서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Miriam 으로서는 ‘신을 자기 형편 좋을 대로 생각’ 하고 있는 Paul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면 스스로 창피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서로 경원하는 그들의 애증은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순환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즉,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Miriam은 자신이 Paul의 양심임을 알고 있으며, Paul 또한 아직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근본이 Miriam에게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Miriam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가 비록 그의 영혼을 쥐고 있다 하여도 ‘나머지 4분의3을 쥐고 있지 못함’ - She did not take the rest of him, which was three quarters. S/L307 - 을 알고 있는 그녀로서는 Paul이 그의 어머니의 소유로 남아 있다는 것과 Clara라는 여인이 지금은 자신보다 그녀가 Paul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Paul이 양가집의 규수와 짝을 맺었으면 하였다. 그런데 Clara라는 여인은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인임은 물론, 이제야 겨우 Miriam의 굴레를 벗어나 드디어 얻어내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Paul의 해방감을 만족시키기에는 Clara라는 여인이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Paul은 인생문제를 두고 어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어머니가 말하는 계급의식에 관심이 없으며, 다만 ‘나 자신이라는 인간’ - but in myself I am. S/L 313 -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유복한 중산층에 속하고 싶지 않으며, 자신도 서민의 한사람’ - I don’t want to belong to the well-to-do middle class.(…).

I belong to common people. S/L 313 - 입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차이가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 - the difference between people isn't in their class, but in themselves. S/L 313 - 고 말하고 '중류계급에서는 사상을 얻을 수 있고 하층계급(서민)에게서는 인생 그 자체의 온기를 얻는다' .- Only from the middle classes one gets ideas, and from the common people-life itself, warmth. S/L 323 - 는 것이었다.

Paul의 이런 주장은 금후에 있을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인생관의 초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까이는 Clara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Paul이 육체의 화신으로 알았던 바로 그녀에게서 그는 인생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상대에게서 간파해 내지 못한 우둔함을 질책 당하고 있는 것이다; Miriam은 '당신과 영적인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그건 당신의 상상일 따름이오. 그녀는 당신이란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 That she doesn't want any of your soul communion. That's your own imagination. She wants you. S/L 339 - 라며 충고하고 있음을 본다. '결혼을 해야 한다면 Miriam과 결혼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 He believed himself really bound to Miriam. If ever he should marry, some time in the far future, it would be his duty to marry Miriam. S/L 337 - 라고 생각하고 있는 Paul에게서 Clara는 지금까지 Paul속에 남아 있는 Miriam의 잔영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녀에 대한 Paul의 감정이 천박하고 일시적이어서 결국에는 Paul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확신하는 Miriam도 Clara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강렬한 매혹의 존재' 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 5

Paul에게 있어서 Miriam은 청춘에 속하는 여인이었다. Clara라는 새로 생긴 성적여인 때문에 잠시 그들 관계가 소원해 지고, 어머니의 간섭으로 그들의 관계가 잠시 고통을 받았으나 지금까지의 그들의 관계는 명암의 대조처럼 그렇게 순환적이었다. Paul의 처지에서 볼 때 여기에는 육체에의 욕구와 순결성, 그 사이를 오가며 도의적 시각에서 본 자기성찰과 이에 반응하는 Miriam의 대응심리에서 우리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말 지어질 것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읽어 낼 수 있다. 'Test of Miriam' 편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그들이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운명적인 과정을 잘 보여준다.

Paul/Miriam의 lovemaking 장면을 일러 G. Salgado는 '성적인 절정과 인간적인 성취감간의 거리감, 그리고 애인들 간의 성적교환이 그들 관계의 정점이 아니

라 최하위점' -the utter discrepancy between physical consummation and true human fulfillment, the sexual union between the lovers making the nadir rather than the zenith of their relationship--7」 입을 들어 가장 비통한(= 비극적) 장면이라 하였지만, 두 사람간의 피로운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Miriam의 종교적인 면을 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지나치게 기운 Paul에게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생명은 지금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며 인생은 그림자일 뿐, 밤과 죽음과 적막과 무위 같은 것들이 실재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은 위대한 실체 - the great Being-와 일체가 된다는 것이 자기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다.(See S/L 350). 그런데 Miriam은 Paul이 자신을 완강히 요구해 온다면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음에도 Paul은 Miriam이 취하는 역동적인 행위에 반응해 가는 상대역- being -으로서의 action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Great-being으로서의 탄생 그 자체를 스스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Miriam과의 관계를 통해서 Paul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른바 '위대한 실체와 일체가 되어서 암흑을 지배한다' 는 그의 사념은 Miriam을 피해 가고자 하는 투사행위이며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되고 있다.

어머니 이제 Miriam과는 손을 끊겠습니다. - I Shall break off with Miriam, mother. S/L359 - 라고 말해 오던 Paul이 드디어 Miriam에게 입을 연다; '난 생각해 왔지만, 우리들은 헤어져야 할 것 같소.' ... '난 헤어지고 싶소.--당신은 나한테서 자유가 되고, 나도 당신한테서 자유가 되고...' '-I have been thinking, he said, 'we ought to break off.' ... 'I want us to break off--you be free me, I free of you.' S/L 360-

Paul은 여기서 어머니를 끌어들이고 있으나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Miriam을 떠나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순전히 그녀를 떠나겠다는 자기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Paul과 어머니와의 역학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어머니는 이제 지쳐있고 아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이 이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경의 어머니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결혼할 생각도 없으며, 그러므로 그녀와의 관계를 씻어 버리겠다.' - I don't love her. I don't want to marry her--so I shall have done.' S/L 359 - 는 말로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Miriam을 떠나고자 하는 Paul의 자기 합리화는 계속된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 'Miriam은 처음부터 나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Miriam은 실망하는 것 같은 일은 없습니다.-' She never thought she'd have me, Mother, not from the first, and so she's not

disappointed.’ S/L 366 - 라고 태연히 말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Paul의 자기 정당화는 진정으로 자신이 독립을 취할 수 있는 시점에 와서 그녀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도 Miriam과의 결별은 부당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Paul이 Miriam에게 각기 다른 길을 가자고 말하자, 그러면 ‘나는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 -And whatever have I to tell my mother? S/L362 - 고 Miriam이 물었을 때, 비열하게도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 놓고서, 보다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의 부당함을 보는 것이다. ‘우리들 사이는 항상 이랬어요(...)우리들 사이는 기나긴 투쟁이었어요-당신은 절 피하려고 투쟁하고 있었어요.’ - Always--it has always been so!’ (...) ‘It has been one long battle between us--you fighting away from me’ S/L 362 - 라는 Miriam의 절규는 Paul에게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질문은 이미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Miriam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8년간의 우정과 연애의 종말이 온 것이다.

## 6

G. Salgado는 이 소설을 해설한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이 소설이 출판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는 아주 동떨어진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등장인물의 상대였던 실제인물들에 대해 Lawrence가 공정했느냐 또는 공정하지 못했느냐 하는 헛된 의문에 말려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같은 경험의 발자취를 따라 그녀가 감동적으로 기록한 글(그 나름대로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읽을 수도 있다’ 8」 고하였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이 소설을 설명한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그도 지적하고 있듯이 소설과 관련하여 실제상황의 경험을 ‘같은 경험의 발자취를 따라 감동적으로 기록한글’ 을 원고 그가 과연 실제 인물에 대해 공정했느냐, 또는 공정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Miriam의 관점이 아니라 Jessie본인의 관점에서든 아울러 조명해 보는 일은 소설의 이해에 또 하나의 유용한 정보일 수 있을 것임으로 전혀 헛된 의문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Lawrence는 아들이 여자와 사귀어 성감정을 성취하고 나면 왜 그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하도록 했을까? 어머니 가 죽자 그가 키 없는 배나 다름없을 만큼 심한 충격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를 연인처럼 사랑했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다. - I’ve loved her, like a lover. That’s why I could never love you.-9」 라거나 내가 내속을 들여다봐도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도저히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다. -

he had looked into his heart and could not find that he loved me as a husband should love his wife.-10」는 등의 장황한 변명은 허구라는 것이 Jessie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소설 속의 상황인 그 시점에 그는 X라는 여인과 사실상의 약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Jessie는 Lawrence에게 어머니에 대한 그의 태도를 좀더 분명히 하도록 충고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포함하여 Miriam과의 관계를 보다 사실에 가깝게 다루어서 피부의 각질을 벗어버리듯 과거로부터의 예측에서 Lawrence가 속히 벗어나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Jessie는 이 소설을 다시 쓰되 사실대로 써야 한다. - Finally I suggest that he should write the whole story again, and keep it true to life.-11」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Lawrence가 스스로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런 식으로 theme를 잡으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될 것임으로 그의 재능으로 미루어보아 아주 다양한 상호관계의 작용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녀는 그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믿었다.



Jessie는 Lawrence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증오심도 없으며 그녀가 그의 어머니- 'Towards Lawrence's mother I had no bitter feeling, because she was his mother.-12」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만 자신의 소망은 자유로워진 Lawrence를 다시 보는 것이라 하였다: 그가 어머니의 환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자기 발전은 없다는 것이 그녀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Jessie는 그녀가 본능적으로 의식한 감각으로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소설화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적어도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녀의 그에 대한 믿음이었다(See P/R 193).

Jessie에게 흥미를 주었던 Miriam이 기아이고 Paul이 그녀와 친구 사이이며 어머니가 아들 Paul이 사랑하는 Miriam과 맞서도록 theme을 전개해 나간 초교본은 이미 아니었다. 개작은 Jessie에게 절박한 정신적 붕괴감을 준 것이다. 그러나 Lawrence가 나의 기억이 자신의 기억보다 더 분명하다는 이유로 옛날에 대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를 적어 달라는 그의 요청에 응하여 그를 위해 기억을 메모해 갔다고 했다.(See P/R 193)그러면서 Jessie는 이런 말로 그를 두둔한다; 사건의 대소를 막론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신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고,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기 내부에서 자신을 통찰할 줄 아는 사람이며, 노동계급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해 나감에 있어서 드물게 보는 창의적인 예술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재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와의 사별은 그를 추진축이 파손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믿고 있다.

그는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동무들과 어울려서는 외면상으로 의기 양양해 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절망이나 다름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 Jessie와 같이 있으면 영감이 떠오른다고 한말은 사실이었다. Lawrence는 Jessie가 문필가로서 입신하기를 기대하였는가 하면, 그녀가 그녀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마땅치 않아 했다. 그리고 그 무렵 우정의 영클어진 실타래를 다시 손질하려던 Jessie의 노력 또한 실패하고 있었다. Jessie가 Lawrence에게서 그의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보다도 더한 유대감이 그와 어머니과의 사이에 남아 있음을 알았던 때도 이 시점이었다.

나만이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믿었던 지위로부터 축출 당한 명백한 동기를 Lawrence와 어머니 사이의 유대감'이라고 Jessie가 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둘은 그때 다시 옛날에 두 사람이 빠졌던 궁지 Dilemma'에 다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뀌어진 환경 탓으로 둘은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Jessie는 인식하고 있었다. Jessie에게는 Lawrence라는 인간이 다른 한 사람을 제압해 버린 다음, 그것을 제물로 삼을 것을 기대하면서 긴장의 중심에 못이 박혀 그저 멍청히 서 있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압해 없애 버리거나 버려야 옳다. 그러나 그는 Jessie와 그리고 어머니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다. 소설은 이러한 정신상태-긴장의 중심에 던져진 상황-에서 기획되었고, 그러므로 소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의 긴장된 정신에 맞서는 처절한 싸움과 같은 것으로 그 긴장의 폭발은 Miriam의 취급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Jessie가 밝히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Jessie는 Lawrence의 Miriam에 대한 취급양식에 매우 당혹해 하는가 하면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자기와는 아주 먼 거리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녀는 그가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나갔다는 데에는 의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그가 보내온 소설의 필분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제-the real issue-와 마주치게 될 때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보고 오래전 부터 있어온 그의 무능의 한계를 실감하는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의견을 구해왔던 일하며, 조언을 요청해 왔던 일들이 이제 사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았을 뿐, 이제 와서 Mrs. Morel과 Miriam의 취급에 따른 적정성의 문제로 Lawrence와 시비를 벌이는 일이 그 얼마나 허망한 노루인지를 새삼 인식하는 것이다.

Jessie가 보는 Lawrence의 인생은 그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Identity을 바



르게 알려진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거부한 채 권위에 이끌려온 피 지배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스스로 고통받는 명에로부터 탈출하거나 구원을 받아 해방되기보다는 차라리 그 속박을 미화하고 절대화해 갔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는 어머니를 최고로 해 둘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불경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과연 상대를 정복해 갔지만 패배자는 누구 아닌 그녀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어머니께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Jessie와 Lawrence의 갈등은 결국 새로운 정신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Paul의 의지 - 'I want to break off you-you be free of me, I free of you'. S/L 360- 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반응하는 Miriam의 항의 - 'it has been one long battle between us-you fighting away from me.' S/L 362 - 또한 거센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their love had been always a conflict. S/L 365 - 라는 명가에서 이미 운명지어져 있었다 하겠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힘의 원천에 의식적인 지성의 개입을 반대하는 Lawrence에 의해 의도된 것이었고, 그는 그같은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Jessie의 불만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References

- 1) D.H. Lawrence and 'Sons and Lovers' source and criticism. ed. by E. W. Tedlock, New York Univ. Press 1965. pp.49-50 by H. T. Moore
- 2) The Life and Works of D.H. Lawrence. by Harry T. Moore, George Allen & Unwin Ltd, Ruskin House Museum Street, London. p.380
- 3) D.H. Lawrence: Sons and Lovers. by Gamini Salgado, Edward Arnold, p.28
- 4) Ibid,3, p.29
- 5) Ibid,4, p.30
- 6) D.H. Lawrence: a collection of criticism. ed., by Leo Hamalian, McGraw-Hill paperbacks. contemporary studies in Literature, Sons, Lovers, Mothers. by Alfred Kazin, p.24
- 7) Ibid,5, by G. Salgado, p.41
- 8) Ibid,7, by G. Salgado, p.59 Ibid,2, by Harry T. Moore, p.62
- 9) D.H. Lawrence: A Personal Record, by "E.T." 1935. p.184
- 10) Ibid,9, by "E.T", p.185

- 11) Ibid,10, by "E.T", p.192
- 12) Ibid,11, by "E.T", p.193
- 13) Ibid,12, by 'E.T', p.202

+Text는 Penguin books, 1981을 사용하였음.  
page의 표기는 S/L-page-로 함.



## ■ Abstract

**Conflicts between E.T. and Lawre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S/L-**

Park, Jeong-Gil

Paul Morel, Gertrude Morel, and Miriam Leivers : They are the central characters of Sons and Lovers. Paul is a good portrait of the young D.H Lawrence himself. He is especially sensitive, artistic, and imaginative, and he becomes extraordinarily dependent on his mother, Gertrude Morel. When he gets older and begins to have important relationship with Miriam Leivers.

Thus we see Paul being stimulated and encouraged both by his mother and Miriam: Gertrude Morel who has been driven, by her disappointment in her real, lawful husband to make her son into miniature husband-figures from their earliest childhood. And Miriam Leivers Lawrence's fictionalized portrait of his first love, Jessie chambers, who certainly loved Lawrence for his genius even after she had relinquished all personal claim on him.

Jessie herself, as I have described in this essay, was quite resentful of the picture Lawrence drew of her in the Sons and Lovers; She felt it was thoroughly unfair and inaccurate.

According to Jessie chambers, the author portrayed Miriam insultingly and unrealistically as to make his mother seem superior. This is why the original of Miriam Leivers, Jessie chambers, says in her touching memoire-D.H. Lawrence: A Personal Record, by "E.T."-that she had to break with Lawrence after she had seen the final draft of the book, that "the shock of his Sons and Lovers gave the death-blow to our friendship", for in that book "Lawrence handed his mother and me laurels of the victory".

